

권혁승 교수의 <남북 왕조의 멸망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9강

북 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일곱 왕들

오늘의 포인트

1. 북 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일곱 왕 통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2.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여로보암 2세와 베가 통치 시대에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였는가?
3. 북 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실책은 무엇인가?

1. 마지막 일곱 왕 시대의 특징

1. 마지막 일곱 왕 시대의 특징

- 1) 마지막 일곱 왕의 통치 기간: 82년 7개월
(여로보암 2세 통치를 빼면 41년 7개월)
- 2) 5개의 왕조가 바뀐 시대
 - 제5왕조 예후 왕조의 말기: 여로보암 2세(41년)와 스가랴(6개월)
 - 제6왕조: 샬롬 (1개월)
 - 제7왕조: 므나헴(10년)와 브가히야(2년)
 - 제8왕조: 베가 (20년)
 - 제9왕조: 호세아 (9년)
- 3) 일곱 왕 중 비교적 오랫동안 통치한 두 왕: 여로보암 2세(41년)와 베가(20년)
- 4) 마지막 왕 호세아
- 5) 일곱 왕들의 공통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23~29절)

2. 여로보암 2세

- 1)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41년간 통치
- 2) 안정적인 통치로 가장 강력하고 번성하는 시대를 이룸
- 3) 유능한 군사 지도자이면서 지혜로운 행정가였음
- 4) 100여 년 전 바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빼앗긴 영토(왕상 15:20)를 회복함 (14:25)
- 5) 선지자 요나의 도움을 받아 하맛 어귀(북부 지역)에서 아라바 바다(남부 지역/ 동부 지역)까지 영토를 회복 (14:25)
- 6) 그것은 다윗-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해당됨 (삼하 8:1~14; 왕상 4:21)
- 7) 여로보암의 영토 회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존하시겠다는 증거 (14:27)
- 8) 같은 시대 통치자였던 유다 왕 아사랴(웃시아)도 같은 물질적 번영을 이룸
- 9) 여로보암 2세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 (14:24)
- 10)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통치 후 살룸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함 (15:8~10)
- 11)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동안 왕권이 유지됨 (15:12)

3. 베가

(열왕기하 15장 27~31절)

3. 베가

- 1) 능력 있는 군인 출신
- 2) 길르앗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20년 통치
- 3)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
- 4)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공격으로 영토가 점령당하고 백성이 사로잡혀 감
- 5) 아람과 반 앗수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함
- 6) 디글랏 빌레셀 비문:
“오므리의 땅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과 함께 앗수르로 끌고 왔다”

4. 호세아

(열왕기하 17장 1~6절)

4. 호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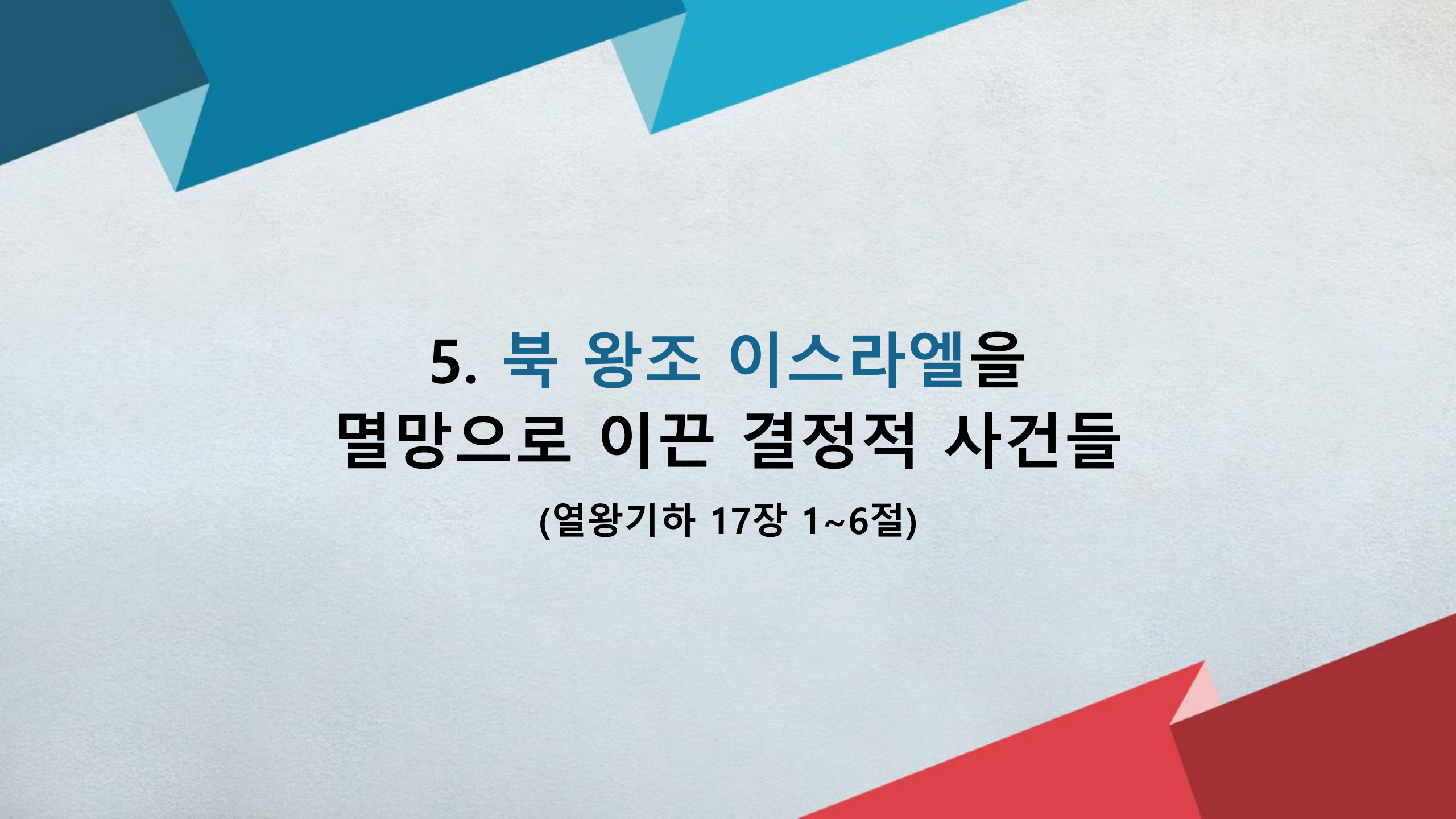
- 1) 베가를 살해하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어 9년 통치
- 2)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 왕들과는 같지 않았음
북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허용함 (대하 30:10~22)
- 3)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 왕 소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음
- 4) 앗수르 군대가 침입하여 마지막 타격을 가함
- 5) 3년 포위 끝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
- 6) 북 왕조 이스라엘과 관련된 앗수르 비문

-디글랏 빌레셋 비문:

“그들의 왕 베가를 그들이 전복시켰다. 나는 호세아를 세웠다
그는 나에게 금 10달란트와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

-사르곤의 비문:

“나는 첫 해에 사마리아를 정복했다. 나는 포로 27,290명을 잡아 왔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5. 북 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들

(열왕기하 17장 1~6절)

5. 북 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들

- 1) 디글랏 빌레셀 3세(불) 침공: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 (15:19)
- 2) 베가-르신의 반 앗수르 동맹
 - 반 앗수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유다를 위협
 - 이들은 블레셋과 에돔의 동맹 참여를 얻어냄
 - 그러나 유다의 요담은 동맹 참여를 거부
 -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대 베가와 르신은 유다를 침공 (왕하 16:5; 사 7:1~2)
 - 아하스는 앗수르에 많은 조공과 함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 (16:7~9)
- 3)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유다를 위한 개입
 - 디글랏 빌레셀은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 다메섹을 쳐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고 르신을 처형시킴 (16:9)
 -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제국에 예속시킴 (15:29)
 - 아하스는 앗수르의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시켜야 했음 (16:10~18)
 - 이 사건 이후 북 왕조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멸망함

**6.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어떤 제국인가?**

6.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어떤 제국인가?

- 1)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 2) 앗수르의 정책: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어
그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킴
- 3)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약탈한 것으로
제국을 세우고 유지해 나감

6.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어떤 제국인가?

4. 앗수르의 역사

- 주전 2000년 이전 바벨론 출신 이민자들이 국가 건설
- 여러 세기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음
- 주전 1300년경 살만에셀 1세가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 전체를 지배
- 잠시 쇠퇴하였다가 디글랏 빌레셀 1세(주전 1120~1100년) 때 강대국으로 부상
- 다시 쇠퇴기를 거친 후 마지막 300년간(12왕들이 통치)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
- 주전 612년 니느웨의 멸망과 주전 609년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주도권이 신흥 바벨론으로 넘어감
- 이스라엘과 관련된 앗수르 왕들
 - a. 살만에세 2세(860~825년): 이스라엘의 아합과 싸운 왕; 예후가 조공을 바침
 - b. 디글랏 빌레셀 3세(746~727년): 이스라엘 북쪽 점령/ 포로로 끌고 감
 - c. 살만에셀 4세(727~722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죽였음
 - d. 사르곤 2세(722~705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감
 - e. 산헤립(705~681년):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패배함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정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초라한 실패자에 불과했다
(그에 대한 성경 내용은 7절에 그침)
2. 선지자들(요나, 호세아, 아모스)의 왕성한 활동도
믿음의 수용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3.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 노력이
오히려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